

주요개념 : 불안

##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안정도\*

문 영 임\*\*·박 호 란\*\*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Freud는 불안이란 위협한 상황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반응으로 자신이 과도한 본능적 자극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와 내·외적 요인에 의해 위협이 생길 것 같다는 예측을 할 때 불안이 생긴다고 하였다(한, 김, 박, 송, 이, 이 및 정, 1995). 가족의 일원인 아동이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을때 아동은 물론 그 가족 전체는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자녀가 질병과 입원으로 겪어야하는 검사나 치료과정 등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며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의 불안은 낯선 병원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아동의 병원생활 적응과 질병회복 및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haley & Wong, 1989).

노(1983)는 환자 어머니가 정상 어머니보다 상태불안이 높다고 하였고 이(1983)는 수술 전이 수술 후보다 어머니의 상태불안이 높다고 하였다. 아동 입원시 어머니의 불안은 상황적인 불안으로 자극의 정도에 따라 혹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고 본다.

그러나 입원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및 의료적 특성 별로 어머니의 불안 정도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아동이 질병으로 입원시 가족중심 간호접근의 일환으로 환자의 간호에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의 불안 정도와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여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이론을 발달시키므로써 아동의 병원생활 적응과 질병회복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저자는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안정도를 파악하여 가족중심 간호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학령기 입원 아동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를 알아 본다.
- 2) 학령기 입원 아동 어머니의 상태 불안이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 9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학

\* 이 연구는 1995년도 가톨릭 대학교 간호대학 연구기금으로 이루어 졌음

\*\* 가톨릭 대학교 간호대학

령기 아동의 어머니 395명이다.

병원 표준화 심사를 근거로 하여 A급 병원에서 50명, B급 이하 병원에서 40명씩, C급 이상의 종합병원 9개소에 입원한 학령기 아동을 할당표집하여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Spielberger가 제작한 STAI 중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작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 3.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하루중 환아나 병동이 비교적 안정된 시간에 실시하였다. 학령기 입원아동의 병상기록을 참고로 일반적인 사항을 질문에 기록하여 파악한 후 수간호사의 안내로 입원아동의 어머니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주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AS 프로그램에 의해 전산 처리하였다.

아동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을,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최빈치를 구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가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위해 unpaired t-test와 분산분석을 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상 40세 이하가 68.3%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43.2%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의 72.6%에서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30.7%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75.5%에서 직업이 없었으며 98.7%가 결혼상태에 있었다. 어머니 자신의 입원 경험이 없는 경우가 75.0%였고 다른 자녀가 입원했던 경험이 없는 경우도 74.1%였으며 다른 자녀 상실

경험이 있는 경우가 1.8%였다.

〈표 1〉 입원아동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실수=395)

| 특성      | 구분    | 실수  | 비율   |
|---------|-------|-----|------|
| 연령      | 20-34 | 122 | 30.9 |
|         | 35-40 | 270 | 68.3 |
|         | 41세이상 | 3   | 0.1  |
| 교육 수준   | 초등줄이하 | 48  | 12.2 |
|         | 중졸    | 86  | 21.8 |
|         | 고졸    | 170 | 43.2 |
|         | 대졸이상  | 90  | 22.8 |
| 종교      | 천주교   | 83  | 21.2 |
|         | 기독교   | 120 | 30.7 |
|         | 불교    | 75  | 19.2 |
|         | 기타    | 6   | 1.6  |
|         | 없다    | 107 | 27.4 |
| 직업      | 없다    | 296 | 75.5 |
|         | 근로자   | 18  | 4.6  |
|         | 숙련공   | 7   | 1.8  |
|         | 판매직   | 33  | 8.4  |
|         | 사무직   | 31  | 7.9  |
|         | 관리직   | 3   | 0.8  |
|         | 전문직   | 4   | 1.0  |
| 결혼 상태   | 기혼    | 388 | 98.7 |
|         | 기타    | 5   | 0.13 |
| 입원 경험   | 있다    | 94  | 25.0 |
|         | 없다    | 282 | 75.0 |
| 타자녀입원경험 | 있다    | 102 | 25.9 |
|         | 없다    | 292 | 74.1 |
| 타자녀상실경험 | 있다    | 7   | 1.8  |
|         | 없다    | 388 | 98.2 |

★ 무응답으로 대상자 수에 차이가 있음.

한편 입원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입원아동 연령은 6세에서 13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학년 또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남아가 56.5%, 여아가 43.5%로 남아가 약간 많았으며 종교는 기독교(33.6%) 무교(25.6%) 천주교(19.5%) 불교(16.5%)의 순서로 어머니의 종교 분포의 순위와 일치하였다.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가 51.1%로 가장 많았으며 성장지역은 90.6%가 서울지역과 중수도시로 주로 도시에서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원 질병은 내과계 질환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62.0%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다. 입원 횟수는 50.1%가

첫 번째 입원이었고 입원기간은 1일 이상 3일 이하가 35.0%로 가장 많았으나 30일 이상, 100일 이상도 각각 7.1%, 1.0%이었다. 또한 입원 형태는 응급입원이 52.4%, 계획된 입원이 47.6% 였다.

〈표 2〉입원아동의 일반적 특성 (실수=395)

| 특성   | 구분                         | 실수  | 비율   |
|------|----------------------------|-----|------|
| 연령   | 6-7세                       | 72  | 18.2 |
|      | 8-11세                      | 276 | 69.9 |
|      | 12-13세                     | 47  | 11.9 |
| 성별   | 남                          | 223 | 56.5 |
|      | 여                          | 172 | 43.5 |
| 학년   | 1                          | 63  | 15.9 |
|      | 2                          | 72  | 18.2 |
|      | 3                          | 69  | 17.5 |
|      | 4                          | 63  | 15.9 |
|      | 5                          | 68  | 17.2 |
|      | 6                          | 60  | 15.2 |
| 종교   | 천주교                        | 77  | 19.5 |
|      | 기독교                        | 148 | 37.6 |
|      | 불교                         | 65  | 16.5 |
|      | 없다                         | 101 | 25.6 |
|      | 기타                         | 3   | 0.8  |
| 출생순위 | 첫째                         | 201 | 51.1 |
|      | 둘째                         | 115 | 29.8 |
|      | 셋째이상                       | 70  | 18.1 |
| 성장지역 | 서울                         | 263 | 66.6 |
|      | 중소도시                       | 95  | 24.1 |
|      | 농, 어, 산촌                   |     |      |
|      | 기타                         | 37  | 9.4  |
| 입원질병 | 소아내과계                      | 200 | 50.6 |
|      | 정형외과계                      | 84  | 21.3 |
|      | 이비인후과, 안과,<br>성형외과계        | 54  | 13.7 |
|      | 비뇨기계, 흉부외과,<br>일반외과, 신경외과계 | 57  | 14.4 |
|      | 입원횟수                       | 첫번째 | 195  |
|      | 두번째                        | 115 | 29.6 |
|      | 세번째이상                      | 79  | 20.3 |
| 입원기간 | 1-3일                       | 133 | 35.0 |
|      | 4-7일                       | 110 | 29.1 |
|      | 8-29일                      | 105 | 27.8 |
|      | 30일이상                      | 29  | 7.1  |
|      | 100일이상                     | 3   | 1.0  |
| 수술   | 유                          | 149 | 38.0 |
|      | 무                          | 243 | 62.0 |
| 입원형태 | 응급입원                       | 204 | 52.4 |
|      | 계획된입원                      | 185 | 47.6 |

★ 무응답으로 대상자수에 차이가 있음

## 2.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상태불안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상태불안 점수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점  $46.7 \pm 0.28$ , 총점평균  $2.34 \pm 0.61$ 로 나타났다(총점 : 최고 20-최고 80, 총점평균 : 최하 1-최고 4).

〈표 3〉입원아동 어머니의 상태불안

| 항목                            | 평균    | 표준편차 | 최빈치 |
|-------------------------------|-------|------|-----|
| 1. 마음이 차분하다.                  | 2.62  | 0.96 | 3   |
| 2. 마음이 든든하다.                  | 2.45  | 0.99 | 3   |
| 3. 긴장된다.                      | 2.78  | 1.01 | 3   |
| 4. 후회된다.                      | 1.73  | 0.97 | 1   |
| 5. 마음이 가볍다.                   | 2.36  | 1.05 | 3   |
| 6. 속상해서 화가 난다.                | 2.38  | 1.10 | 3   |
| 7.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br>정스럽다. | 2.73  | 1.06 | 3   |
| 8. 안정된 마음이다.                  | 2.45  | 1.00 | 3   |
| 9. 불안하다.                      | 2.54  | 1.03 | 3   |
| 10. 마음이 편안하다.                 | 2.47  | 1.01 | 3   |
| 11. 자신감이 있다.                  | 2.75  | 0.93 | 3   |
| 12. 짜증이 난다.                   | 2.40  | 0.98 | 3   |
| 13. 조마조마하다.                   | 2.44  | 1.01 | 3   |
| 14. 신경질이 날 정도로 과민해졌다.         | 2.24  | 1.03 | 3   |
| 15. 마음이 푸근하다.                 | 2.27  | 0.97 | 3   |
| 16. 만족스럽다.                    | 2.36  | 0.98 | 3   |
| 17. 걱정스럽다.                    | 2.86  | 0.98 | 3   |
| 18. 흥분되고 마음이 들뜬다.             | 1.86  | 0.94 | 1   |
| 19. 즐겁다.                      | 1.55  | 0.76 | 1   |
| 20. 유쾌하다.                     | 1.51  | 0.75 | 1   |
| 총 점                           | 46.74 | 0.28 |     |
| 총점평균                          | 2.34  | 0.61 |     |

노(1983)가 학령기 환자의 일반적 공포감과 어머니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환자 어머니의 상태불안 점수를  $55.64 \pm 13.92$ 로, 정상아동 어머니의 불안 점수를  $46.14 \pm 11.73$ 으로 보고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결과의 어머니 상태불안 점수는 학령기 정상아동 어머니의 점수와 비슷하였고 입원아동의 점수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1983)는 수술전 환자 어머니의 상태불안점수를 총점평균 3.05로, 수술후를 2.46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결과는 이와 비교할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1981)이 주사시 아동 어머니의 상태불안 점수의 총점평균을  $2.01 \pm 1.83$ 에서  $2.19 \pm 1.99$ 로 보고한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의 어머니 상태불안의 총

점평균 2.34±0.61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Spielberger(1970)가 STAI 개발과정에서 제시한 여자 대학생의 평균점수 37.24, 힘든 IQ검사 과정 뒤의 여대생의 상태불안 점수 43.69와 비교할 때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상태불안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의 입원으로 인하여 아동 자신은 물론 부모나 가족 특히 어머니는 두려움, 불안, 좌절 등의 다양한 정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가 높은 불안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입원아동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 상태 불안

학령기 아동이 입원한 경우 아동 어머니의 상태불안은 어머니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4). 즉 어머니 연령이 20세 이상 35세 미만군과 35세 이상군 간에 어머니의 상태불안점수에 차이가 있어 35세 이상군에서 어머니의 불안이 낮았다(F=2.06, p=.037).

이 이혼, 별거, 사별 상태인 어머니 군에서보다 아동입원으로 인한 상태불안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다른 자녀를 상실했던 경험이 있는 어머니(2.99±0.35)가 타자녀 상실경험이 없는 어머니(2.55±0.61)보다 아동 입원시 어머니의 상태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87, p=.061).

이 밖의 어머니 직업 유무, 과거 어머니의 입원 경험 유무, 다른 자녀의 입원경험 유무 등에 따른 어머니의 상태불안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즉 아동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에 따른 어머니의 상태 불안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상태불안이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조(1976)가 아동 입원에 대한 어머니 정서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 불안이 어머니의 교육수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달랐으며, 환아 입원에 따른 보호자의 간호요구 영역별 불안에 대한 강(1981)의 조사연구에서 환아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정서 심리적 요구에 따른 불안이 높았다는 결과와는 상

〈표 4〉입원아동 어머니의 특성별 어머니 불안 비교 (실수=395)

| 특성       | 구분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t or F | P     |
|----------|-------|-----|------|------|--------|-------|
| 어머니 연령   | 20-34 | 122 | 2.38 | 0.02 | 2.06   | 0.037 |
|          | ≥35   | 270 | 2.32 | 0.01 |        |       |
| 어머니 교육수준 | 초등졸이하 | 48  | 2.61 | 0.26 | 3.28   | 0.021 |
|          | 중졸이하  | 86  | 2.64 | 0.34 |        |       |
|          | 고졸    | 170 | 2.59 | 0.34 |        |       |
|          | 대졸이상  | 90  | 2.38 | 0.31 |        |       |
| 어머니 종교   | 있음    | 283 | 2.52 | 0.62 | 2.19   | 0.028 |
|          | 없음    | 107 | 2.67 | 0.58 |        |       |
| 결혼 상태    | 기혼    | 388 | 2.55 | 0.61 | 1.83   | 0.067 |
|          | 기타    | 5   | 3.06 | 0.55 |        |       |
| 타자녀상실경험  | 있음    | 7   | 2.99 | 0.35 | 1.87   | 0.061 |
|          | 없음    | 386 | 2.55 | 0.61 |        |       |

]Sheffé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상태불안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다중비교결과 대졸이상군이 초등졸, 중졸, 고졸이하 군보다 상태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3.28, p=.021). 또한 어머니 종교 유무에 따라 어머니 상태불안에 차이가 있었는데 종교가 있는 군(2.52±0.62)이 종교가 없는 군(2.67±0.18)보다 상태불안이 낮았으며(F=2.19, p=.028). 결혼상태가 기혼인 어머니 군

반되었다.

그러나 Schepp(1991)는 입원아동의 어머니는 아동 입원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심하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상태불안정도가 어머니의 입원경험 유무, 타자녀의 입원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아 어머니의 상태불안이 어머니의 입원 경험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박(1981)의 결과와 일치하나, 다른 자녀의 입원 경험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 입원아동 어머니의 불안이 높아진다는 Schepp(1991)의 보고와는 상반되었다.

한편 입원한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어머니의 상태불안에 차이가 있었는데 즉 아동이 입원하게 된 질병의 종류, 입원기간, 환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 어머니 상태불안에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표 5).

아동의 질병진단에 따라 어머니의 상태불안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Whaley and Wong(1989)도 아동 질병의 중정도가 입원 아동 어머니 불안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입원기간이 길수록 어머니 불안정도가 높게 나타난 본 결과는 입원기간이 짧을수록 어머니 불안이 높아진다는 강(1981)의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아동의 출생순위 첫째와 셋째가 둘째에 비하여 어머니 불안이 높

<표 5> 입원아동의 특성별 어머니 불안 비교 (실수=395)

| 특성    | 구분                      | 실수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
| 입원 질병 | 소아내과계                   | 200  | 2.58 | 0.32 | 3.63 | 0.013 |
|       | 정형외과계                   | 84   | 2.63 | 0.36 |      |       |
|       | 이비인후과,안과,               |      |      |      |      |       |
|       | 성형외과계                   | 54   | 2.31 | 0.30 |      |       |
| 입원 기간 | 비뇨기계, 흉부외과, 일반외과, 신경외과계 | 57   | 2.61 | 0.28 | 4.00 | 0.003 |
|       | 1~3일                    | 133  | 2.45 | 0.33 |      |       |
| 4~7일  | 110                     | 2.48 | 0.31 |      |      |       |
| 8~29일 | 105                     | 2.67 | 0.32 |      |      |       |
| 30일이상 | 29                      | 2.79 | 0.32 |      |      |       |
| 출생순위  | 100일이상                  | 3    | 3.10 | 0.29 | 3.27 | 0.03  |
|       | 첫째                      | 200  | 2.62 | 0.30 |      |       |
|       | 둘째                      | 115  | 2.44 | 0.33 |      |       |
|       | 셋째                      | 70   | 2.59 | 0.31 |      |       |

] Sheffé test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

입원아동의 질병이 이비인후과, 안과, 성형외과 계인 경우의 어머니 상태불안점수가 가장 낮아서 기타 다른 질병으로 입원한 아동의 어머니 상태불안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F=3.63, p=.013), 아동의 입원기간이 100일 이상인 경우의 어머니 상태불안이 3.10±0.29로 가장 높아 1일 이상 3일 이하군, 4일 이상 7일 이상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F=4.00, p=.003).

또한 환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 어머니의 상태불안에 차이가 있었는데 다중비교 결과 출생순위가 첫째와 셋째 이상인 군에서 출생순위 둘째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F=3.27, p=.030).

이 밖의 입원아동의 성별, 연령, 학년, 종교유무, 성장지역, 수술유무, 입원횟수 및 입원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상태불안 점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1981)은 입원아동의 질환에 따라 어머니의 상태불안정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박(1981)은

는 것으로 나타난 본 결과는 부모의 자녀 양육경험이 적을수록 아동 입원으로 인한 불안이 높아진다는 Schepp(1991)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 한편 아동의 연령, 성별, 학년 등은 아동입원으로 인한 어머니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어머니의 불안이 환아의 성별, 연령과 무관하였다는 조(1976)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환아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어머니들은 같은 정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이(1983)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입원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 불안이 증가하였다는 강(1981)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또한 아동의 입원이 응급일 경우에 계획된 입원을 한 아동보다 그 어머니의 불안이 더 높았다는 보고(Schepp, 1991)나 입원 아동이 여아인 경우보다 남아인 경우에 어머니 불안이 더 높았다는 보고(강, 1981)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위의 특성에 따라서 어머니 불안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입원으로 가족 특히 부모는 다양한 불안 반응

을 나타내어 흥분, 떨림, 불안정, 쉼 목소리, 엉뚱한 행동 및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불안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는 병원의 낯선 환경, 아동과의 분리, 미래나 예후에 대한 막연함, 아동이 겪게되는 고통, 재정적 부담 및 죄의식 등을 들고 있는데(Marlow and Redding, 1988) 이러한 입원아동 부모의 불안 반응이 간호사의 중재로 경감될 수 있다고 본다.

입원아동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안녕 유지 뿐 아니라 어머니 불안이 아동에게 전달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Sarason, Righthall, Davison, Waite and Ruebush, 1967) 어머니 불안에 대한 간호중재는 입원 아동 간호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간호 영역이라 하겠다.

#### IV. 결론 및 제언

학령기 아동의 입원시 그 아동 어머니의 불안정도와 불안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와 아동의 일반적 특성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9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학령기 입원아동의 어머니 395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Spielberger가 제작한 STAI 중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질문지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상태불안 총점 수는 46.7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학령기 입원아동 어머니의 상태불안은 다음의 특성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어머니 연령 35세 이상 군이 20세 이상 35세 미만 군보다 낮았다.
  - (2) 어머니 교육수준 대졸이상 군에서 고졸, 중졸, 초등졸이하 군보다 낮았다.
  - (3) 종교를 갖고 있는 어머니 군이 종교가 없는 군보다 낮았다.
  - (4) 결혼상태가 기혼인 어머니 군이 다른 어머니군보다 낮았다.
  - (5) 다른 자녀를 상실한 경험이 없는 어머니 군이 경험이 있는 어머니군 보다 낮았다.
  - (6) 아동의 입원이 이비인후과나 안과, 성형외과계 질병에 의한 경우가 다른 질병인 경우보다 낮았다.
  - (7) 아동의 입원기간 1-3일, 4-7일 군이 입원기

간 100일 이상 군보다 낮았다.

- (8) 아동의 출생 순위 둘째가 첫째와 셋째 이상에서보다 낮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병원에 입원한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는 높은 상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불안이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입원 아동을 간호하는 아동간호사는 아동의 입원시 이들의 병원생활 적응과 질병회복을 돕기위하여 환아 간호에 동참하고 있는 어머니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며 특별히 어머니나 아동의 일반적 특성들을 고려한 개별적 간호요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학령기 입원 아동을 대상으로한 어머니 불안에 대한 연구가 반복연구가 시행되어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입원 아동 어머니의 불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연구대상을 학령기 아동 이외의 아동에게도 확대 실시하며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강은순(1981). 환아입원에 따른 보호자의 간호요구 영역별 불안도. 중앙의학, 40(4), 281-287.

노승옥(1984). 학령기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14(1), 69-81.

박호란(1981). 주사시 간호제공 방법에 따른 어린이 불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영(1988). 입원중인 환아 어머니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 53(10), 749-758.

이은자(1983). 수술전 교육이 수술환아 어머니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희(1976). 어린이 입원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 최신의학, 20(3), 112-121.

조희(1980). 입원한 환아어머니의 불안해소를 위한 실험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윤복, 김순례, 박호란, 송경애, 이명선, 이미형, 정영 (1995). 간호진단-진단분류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현문사.
- 홍경자, 문영임, 백승남, 안채순, 이군자, 임혜경(1990). 아동간호학. 서울 : 수문사.
- Marlow, D.R.and Redding, B.A.(1988). Pediatric Nursing. Philadelphia ; Saunders.
- Schepp, K.G.(1991). Factors Influencing the Coping Effect of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Nursing Research, 40(1), 42-46.
- Sarason, S.B., Lighthall, F.F., Davison, K.S., Waite, R.P., and Ruebush, B.K.(1967).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New York: Tohn Wiely & Sons Inc.
- Spielberger, C.D. Gorsuch, R.L and Lushene, R.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Whaley, L.F.and Wong, D.L.(1989).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St. Louis ; Mosbey.

- Abstract -

Key concept : anxiety

## A Study on Mother's Anxiety Level of Hospitalized School - Aged Children

*Moon, Young Im · Park, Ho Ra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level of mother's anxiety and to extent knowledge about critical factors of mothers who has hospitalized school aged children.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395 mothers who have hospitalized school-aged children in 9 different general hospital in Seoul.

This outcome measures of mothers' anxiety were tested by Spielberger' STAI.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mean score of mother's anxiety was 46.7.
2. The level of mother's anxiety by mother's age, educational level, reigion and experience of loss of children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

Also level of mother's anxiety by the type of disease, hospital days and birth order of children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

---

\*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